

柴胡의 승양작용에 관한 연구

권동렬^{**2}, 박필상², 강옥화², 이고훈², 이계석², 고호연¹
한국한의학연구원¹,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²

A Study of 'uplift yang-qi to raise sinking' efficacy in Radix Bupleuri

Dong Yeul Kwon^{**2}, Pil-Sang Park², Ok Hwa Kang², Go-Hoon Lee²,
kye suk Lee², Ho-Yeon Ko¹

1: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y, Medicinal Herbs,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Iksan, Jeonbuk 570 749, Korea

ABSTRACT

Objectives : Radix Bupleuri is from the dried root of the herb of the Perennial herbaceous plant, *Bulpleurum falcatum* L. or *Bulpleurum chinense* DC. or *Bulpleurum scorzonrifolium* Willd., family Umbelliferae. Medicinal Properties are bitter and pungent in flavor, slightly cold in nature and attributed to the liver and gallbladder meridians. Actions in modern Materia Medica are regulate the functional relation of internal organs to relieve fever, disperse the stagnated liver-qi and uplift yang-qi to raise sinking. The 'uplift yang-qi to raise sinking' efficacy, out of three efficacies (regulate the functional relation of internal organs to relieve fever, disperse the stagnated liver-qi and uplift yang-qi to raise sinking), has been disputed in the medical profession for a long period. Hereupon, this study ascertained the reason why it has been disputed.

Methods : With respect to this medicinal herb, the efficacies of regulate the functional relation of internal organs to relieve fever, disperse the stagnated liver-qi and uplift yang-qi to raise sinking were described as to what was written in 'Shen Nong's Herbal' from Chin and Han dynasties until Jin and Yuan dynasties.

Results : The beginning of Jin and Yuan dynasties, it began to deal with the 'uplift yang-qi to raise sinking' efficacy and so it has been carried on modern textbooks and medical books. The reason why it was added is that it was influenced by the theory of 'Raise Sinking' advocated by Zhang jieku who lived in the period of Jin and Yuan dynasties. Since then, the properties of 'Radix Bupleuri' have been wrongly known to the public. Additionally, 'Radix Stellariae Seu Gypsophylae', which was begun to be introduced from the Four Cities since the Five Dynasties, has been combined with the best stuffs of 'Radix Bupleuri' produced from Yin Zhou. Consequently, its original properties were remarkably disordered. Likewise, respective medical schools' theories were changed by the influence of 'Bulpleurum scorzonrifolium Willd' begun to be used since Tang dynasty.

Conclusion : it is considered that the current 'Raise Sinking' efficacy of Radix Bupleuri is unreasonable to be applied to the efficacy of the whole Radix Bupleuri because it is limited to certain species.

Key words : Regulate the functional relation of internal organs to relieve fever(發表退熱), Disperse the stagnated liver-qi (疏肝解鬱), and uplift yang-qi to raise sinking(昇舉陽氣).

서론

柴胡는 미나리과(Umbelliferae)에 속하는 다년생草本으로 柴胡 *Brpleurum falcatum* L.[KP], 柴胡(北柴胡) *B. chinense* DC. 狹葉柴胡(南柴胡) *B. scorzonrifolium* Willd.[CP]의 뿌리이다. 性은 苦, 辛, 微寒하며, 肺, 脾, 肝, 膽으로 歸經한다. 현대의 본초학에서는 그 效果를 發表退熱, 疏肝解鬱, 昇舉陽氣 등 3가지로 종합하였다¹⁾. 이 3가지는 역대 醫家들이 오랜 시간동안 얻어낸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考察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시대별 기록

이 약재는 秦·漢시대부터 이미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왔다. 馬王堆 漢墓帛書《五十二病方》²⁾에 癰首, 取此半斗라 기록되어 있어 柴胡가 머리의 癰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張仲景의 《傷寒雜病論》³⁾에서는 柴胡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柴胡가 포함된 방제가 10余首에 이르며, 小柴胡湯에서는 傷寒發熱, 瘧疾, 黃疸 등을 치료하였고, 四逆散은 少陰病과 四逆之證을 치료하고, 鱉甲煎丸은 瘧母를 四時加減柴胡飲은 五臟虛熱 등을 치료하여 柴胡를 이용하여 解表透邪, 退熱, 解鬱 등의 효과를 보았다. 《神農本草經》⁴⁾은 漢이전의 柴胡의 效果를 종합하였는데 柴胡는 上品에 속하며 主心腹腸胃中結氣, 飲食積聚, 寒熱邪氣, 推陳出新 久服輕身, 明目, 益精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시기에 이미 柴胡의 效果가 解表, 退熱, 解鬱로 통일되어졌음을 뜻한다.

南北朝시대의 《名醫別錄》⁵⁾에는 張仲景 등의 醫家들을 종합하여 除傷寒心下煩熱, 諸痰熱結實, 胸中邪逆, 五臟間游氣, 大腸停積水脹及濕痹拘攣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 역시 柴胡를 解表, 退熱, 解鬱로 인식하였음을 뜻한다.

唐초기의 孫思邈은 《千金方》에서 柴胡를 內科, 婦科, 小兒科, 眼科 등에 광범위하게 기록하였는데 柴胡湯⁶⁾에서 寒熱往來와 惡露不盡, 龍膽湯⁷⁾에서 嬰兒壯熱과 變蒸, 瀉肝湯에서 火熱로 인한 眼精紅腫과 事物不清 등을 치료하여 柴胡의 發表와 退熱작용을 이용하였는데 그 중 退熱을 중시하여 임상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唐중기의 《外臺秘要》에서는 柴胡가 사용된 방제가 적지 않는데 柴胡湯⁸⁾으로 天行熱氣, 頭痛, 骨肉酸痛, 壯熱口渴을 치료하였고, 柴胡厚朴湯¹⁰⁾로 心腹脹滿을 치료하였으며, 柴胡湯¹¹⁾으로 胸膈滿塞, 心背撮痛, 走注氣悶을

치료하여 唐代에 柴胡의 行氣解鬱의 깊은 인식과 응용을 보여준다.

또한 《藥性論》에는 熱勞骨節煩疼, 熱氣肩背疼痛. 宣暢血氣, 主下氣消食, 勞乏羸瘦 時疾內外不解 등이 기록되어 있어 柴胡의 退熱기능을 傷寒外感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하였음이 보여 지고, 宣暢血氣 下氣消食으로 行氣疏肝의 작용도 있음을 기록하였다. 《口華子本草》¹²⁾에서는 柴胡가 天行溫疾, 熱狂乏絕, 胸膈氣滿, 健忘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宋代에 柴胡는 특히 外感熱傷에 널리 이용되었다. 《太平聖惠方》¹³⁾에서는 柴胡散으로 妊娠熱病, 頭痛壯熱, 脊背酸痛을 치료하였고, 《普濟本事方》¹⁴⁾에서는 柴胡散을 時疾中伏暑로 傷寒후에 邪入經絡, 體瘦肌熱일때 사용하여 推陳致新, 解利傷寒의 효과가 있음을 기록하였다. 또한 川芎散으로 柴胡와 川芎, 菊花, 防風을 같이 사용하여 風熱上壅, 鼻塞涕淚, 眼多眵泪, 半邊頭痛을 치료하여 이때 이미 柴胡를 傷寒表邪未解 入裏發熱뿐만 아니라 風熱表證에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학질의 치료에도 널리 이용되었는데 《校注婦人良方》¹⁵⁾에서 清脾湯으로 妊婦瘧疾을 치료하였고, 《和劑局方》¹⁶⁾에서 逍遙散으로 血虛勞倦, 五心煩熱, 肢體疼痛, 頭目昏重, 心忪煩赤, 口燥咽乾, 發熱盜汗, 減食嗜臥, 及血熱相搏, 月水不調, 臍腹腸痛, 寒熱如瘧를 치료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柴胡의 退熱작용을 중시했음을 나타낸다.

金元시대는 柴胡로 風熱外感의 치료에 더 많이 사용하였음이 보여진다. 《內外傷辨》¹⁷⁾에서 通氣防風湯으로 風熱乘肺로 인한 肩背痛, 汗出, 小便數而少에 사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까지 柴胡는 解表, 退熱, 解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張元素의 《醫學啓源》¹⁸⁾에서 柴胡, 此少陽, 厥陰引經藥也. 婦人產前產後必用之藥也. 善除本經頭痛, 非此藥不能止. 治心下痞, 胸膈中痛,...引胃氣上昇, 以發散表熱로 柴胡의 “引胃氣上昇”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그 이후 많은 의가들은 그의 방법을 下道로 믿고 升陽說을 定論으로 믿어지게 되었다. 《醫學發明》¹⁹⁾에서 傷元活血湯으로 從高墜下, 惡血留于脇下, 及疼痛不可忍의 치료에 이용하여 柴胡를 瘀血從肝而治에 응용하였다.

明代는 柴胡의 外感, 發熱 등의 치료에 더욱 진일보한 인식을 하였으며 疏肝解鬱, 昇陽舉陷에 본격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滇南本草》²⁰⁾에서는 柴胡를 傷寒發汗解表要藥, 退六經邪熱往來로 모든 外感發熱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傷寒六書》²¹⁾의 柴葛解肌湯과 《景岳全書》²²⁾에서 柴胡는 解肝脾諸經之火라 하였고, 柴胡를 주약으로 쓰는 正柴胡飲²³⁾은 外感 發熱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또한 《滇南本草》에서는 柴胡를 肝經逆結之氣로 여겨 故止左脇肝氣疼痛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本

草綱目》²¹⁾에서 쑤뽕을 治陽氣下陷, 平肝. 用三焦. 包絡相火, 治頭痛. 眩暈. 目昏. 赤痛障翳, 耳聾鳴諸症及肥氣寒熱婦, 婦人熱入血室, 經水不調, 小兒疳疹余熱, 五疳羸熱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쑤뽕의 解表, 退熱, 解鬱작용과 함께 昇陽舉陷의 작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

清代는 《傳青主女科》²⁵⁾에서 通肝生乳湯으로 產後肝鬱, 乳汁不通에 이용하였고, 《雜病源流犀燭》³¹⁾에서는 達鬱湯으로 抑鬱傷肝, 肝酸脇痛, 陽痿不起者를 치료하였다. 《醫林改錯》²⁷⁾에서는 쑤뽕의 疏肝行氣活血작용을 이용하여 氣滯血瘀로 인한 鼻齧久年을 치료하였다. 《症因脈治》²⁸⁾에서는 쑤뽕清肝飲에 白芍藥, 梔子, 黃芩을 배합하여 肝經鬱火로 인한 內傷脇痛을 치료하였다. 《本草從新》²⁹⁾에서는 쑤뽕을 味薄氣昇爲陽, 主陽氣下陷, 能引清氣上行, 而平少陽, 厥陰之邪熱, 宣暢氣機, 散結調經. 爲足少陽膽經表藥. 治傷寒邪熱, 痰熱結實, 心下煩熱, 諸痞寒熱, 頭眩嘔吐, 目赤, 胸痞脇痛, 口苦耳聾, 熱入血室, 胎前產後諸熱, 小兒痘證. 能散十二經瘡疔, 血凝氣滯, 功同連翹. 陰虛火炎氣昇者禁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本草正義》에서는 쑤뽕主治有二層: 一爲邪實, 則外邪之在半表半里者, 引而出之 使還於表, 而外邪自散; 一爲正虛, 則表氣之陷於陰氣者 舉而昇之, 使返其宅, 而中氣自振. 此外, 則有肝絡不疏之症, 在上爲脇肋諸痛, 在下爲臍腹脹, 實皆陽氣不宣, 木失調達所致, 於應用藥中, 少入柴胡, 以爲佐使而作向導 奏效甚捷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쑤뽕의 작용이 解表, 昇陽, 疏肝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清末에 《醫學衷中參西錄》³⁰⁾에서는 谿脛湯으로 治氣鬱成膨脹, 兼脾胃虛而郁, 飲食不能運化를 치료하였다. 쑤뽕의 效果變化는 아래와 같다(표 1 참조).

시기	도서명	기록	請 虛熱	解 肝鬱	益 陰 養 血	升 散 清 陽
漢	神農本草經	主心腹, 去腸胃中結氣, 飲食積聚, 寒熱邪氣, 推陳出新, 久服輕身, 明目, 益精	○	○	○	×
	傷寒雜病論	胸脇苦滿, 往來寒熱, 腹中痛, 下胸痞, 心煩喜嘔	○	○	○	×
南北朝	名醫別錄	除傷寒心下煩熱, 請後熱結實, 胸中邪逆, 五臟間游氣, 大腸停積水脹及濕痺拘攣, 亦可作浴湯	○	○	○	×
唐	千金方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과 같음	○	○	○	×
	藥性本草	能治熱勞, 骨節煩疼, 熱氣肩背疼痛, 宣暢血氣勞之蠱復, 上下氣清矣, 主時疾內外熱不解	○	○	○	×
宋	日華子本草	味甘, 補五勞七傷, 除煩, 止驚, 益氣力, 消痰, 止嗽, 調心, 助添精, 補髓, 入行溫疾, 壯熱之絕, 胃腸氣滿, 健志	○	○	○	×
	大明本草	主勞熱骨蒸, 益氣力, 調心, 助添精, 補五勞七傷, 除煩止嘔, 消痰止嗽	○	○	○	×
	開寶本草	仲景治傷寒有大, 小柴胡湯, 及柴胡加龍牡, 柴胡加芒硝湯等, 故後人治寒熱, 此爲最要之藥	○	○	○	×
	本草衍義	柴胡 本經并無 一字治陽, 今人治陽方中 鮮有不用此者, 凡此誤世甚多, 如張	○	○	×	×

		仲景治寒熱往來如瘧狀, 用柴胡湯, 正合其宜							
金元	珍珠囊	主均熱, 骨蒸, 潮熱, 婦人產前後諸熱	○	○	○	○	×		
	醫學啓源	引胃氣上升	○	○	○	○			
	藥類法像	除虛勞寒熱, 解肌熱, 去早晨潮熱. 此少陽. 厥陰行經本經藥也. 婦人產前, 產後必用之藥. 善除本經頭痛. 若本經痛, 非他藥能止也. 活心不苦, 胸脇痛神藥也	○	○	○	○			
	藥性賦	味苦, 平, 氣微寒, 無毒. 昇也, 陰中之陽也. 其用有四: 左右兩傍脇下痛, 目睛潮熱往來生, 在臟調經內主血, 在肌主氣上行經.	○	○	○	○			
	湯液本草	氣平, 味微苦, 微寒. 氣味俱輕, 陽也, 升也. 純陽, 無毒, 少陽經厥陰行經之藥	○	○	○	○			
明	本草經疏	柴胡味苦平, 微寒而無毒, 爲少陽經表藥. 主心腹腸胃中結氣, 飲食積聚, 寒熱邪氣, 推陳致新, 其性升而散, 故能達表散邪也.	○	○	○	○			
	讀本本草	傷寒發汗解表要藥, 退六經邪熱往來	○	○	○	○			
	本草綱目	治陽氣下陷, 平肝. 體三焦, 包絡相火, 治頭痛, 眩暈, 目昏, 赤痛障翳, 耳聾鳴諸症及肥氣寒熱, 婦人熱入血室, 經水不調, 小兒疳疹余熱, 五疳羸熱	○	○	○	○			
	本草蒙筌	味苦, 氣平, 微寒. 氣味俱輕, 升也, 陽也. 陰中之陽, 無毒, 少陽經, 主心下胸膈熱煩, 諸...	○	○	○	○			
	藥性解	主傷寒心中煩熱, 痰實, 腸胃中結氣, 積聚, 寒熱邪氣, 胸脇下痛. 疏通肝木, 推陳致新, 柴胡氣味昇陽, 能提下元清氣上行...	○	○	○	○			
	藥鑿	氣平, 味微苦, 氣味俱薄, 主毒, 昇也, 陰中之陽也. 主左右脇下刺痛, 目睛潮熱往來, 五臟上調經生血, 能提下陷陽氣, 以薄三焦之火...	○	○	○	○			
	景岳全書	其性涼, 故解寒熱往來, 肌表潮熱, 肝膽火炎, 胸膈痛結, 兼治瘧疾, 血室空熱. 其性散, 故上傷寒邪熱未解, 溫熱熱盛, 少陽頭痛, 肝經鬱症, 雖引清氣上行, 然昇中有散, 故...	○	○	○	○			
清	本草求真	柴胡味苦微辛, 氣平微寒, 雖引清陽之氣, 左旋上行, 然昇中有散, 若無歸者同投, 其散滋養, 如元氣下脫, 虛火上升, 以及陰虛發熱等類, 非可妄投	○	○	○	○			
	本經逢原	柴胡能引清陽之氣, 從左上行, 足少陽膽經之藥, 故...	○	○	○	○			
	本草備要	宣, 發表和與, 退熱昇陽, 故...	○	○	○	○			
	本草從新	味薄氣昇爲陽, 主陽氣下陷, 能引清氣上行, 而平少陽, 厥陰之邪熱, 宣暢氣機, 散結調經. 爲足少陽膽經表藥. 治傷寒邪熱, 痰熱結實, 心下煩熱, 諸瘧寒熱	○	○	○	○			
	本草正義	正虛邪實, 則外邪之在半表半里者, 引而出之 使還於表, 而外邪自散, 肝絡不疏, 故...	○	○	○	○			

표 1 쑤뽕의 效果變化

위의 표로 알 수 있듯이 쑤뽕의 升散清陽이 언급은 금원시대의 장결고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후에 많은 후배들이 이 이론을 믿었고, 심지어 쑤뽕劫肝陰이라는 설까지 나오게 되었다. 劫肝陰說은³¹⁾ 林北海가 《治瘧全書》를 다시 편찬하는 과정에서 서문에 쑤뽕傷肝陰, 葛根竭胃汁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 후에 葉天士가 《臨證指南醫案》, 幼科要略의 瘧門³²⁾에서

이 말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明의 張景岳은 《景岳全書》의 新方八陣 중에서 散陣³³⁾에 柴胡를 많이 이용하여 “柴胡 涼散者也...”라고 하여 散表邪에 중요한 약재로 보았으며, 간음부족의 체질에서 금하지 않았다.

2. 柴胡품종에 따른 效果의 變化

柴胡는 크게 南柴胡와 北柴胡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상해와 절강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北柴胡를 현재 사용 하고 있다. 각 종 柴胡의 產地와 사용부위는 아래와 같다(표. 2 참조).

표. 2 각 종 柴胡의 產地와 사용부위

과 속	繖形科(Umbelliferae)				行竹科(Caryophyllaceae)
분 류 별	南柴胡		北柴胡	銀柴胡	銀柴胡
품 명	軟柴胡	川柴胡	紅柴胡	北柴胡(硬柴胡)	銀柴胡
생 산 지	安徽, 山東, 江蘇동지역, 동북지역에서도 생산되나 품질이 낮음	四川 省 廣元, 通江	安徽滁縣	秦嶺山脈의 陝西, 河南, 湖北省의 인접지역 및 陰山산맥, 河北省, 山西省, 內몽고등 지역,	內몽고의 伊克盟, 河套지구, 賀蘭산맥, 寧夏, 陝西동지역
사용부위	뿌리울 포함한 수초	가지, 잎	뿌리	뿌리	뿌리
비 고	봄에 채취하여 春柴胡라고도 칭함. 원식물은 狹葉柴胡	그 지역에서는 “小竹了”라고도 부르며 竹葉柴胡라고도 함	늦가을에 채취하며, 원식물은 南柴胡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음	小滿,白露에 채취하며, 원식물은 長白柴胡, 六安柴胡, 多脈柴胡등이 있음	봄, 가을에 채취하며, 비대진살하고 색이 희고 모래가 끼지 않는 것이 좋음. 옛날 은주에서 생산된 것은 모양이 황기같이 생겼다 함

柴胡이름의 유래는 《神農本草經》³⁴⁾에 此胡 또는 地 蕪라 기록되어 있고, 宋代의 《圖經本草》³⁵⁾에 최초로 “柴胡”와 “出銀州者爲勝”이라는 기록이 최초로 기재되었다. 地上部分을 柴라고 하고, 地下部分을 胡라고하여 오랜 옛날부터 그 뿌리를 취하여 北柴胡를 正品으로 여겼으며, 《本草綱目》³⁶⁾에서는 此字有柴,紫二音. 此姜,此草之此字音紫, 此胡之此音柴, 此胡生山中, 嫩則可茹, 老則采而爲柴, 故苗有芸蒿, 山柴, 茹草之名, 而根名柴胡也라고 하였으며, 또한 北地所產者, 亦如前胡而喫, 今人謂之北柴胡是也, 入藥亦良 ; 南土所產者, 不似前胡, 正如蒿根, 強硬不堪使用이라 하여 北柴胡를 써야함을 강조하였다. 張中景시대의 醫家들의 柴胡를 이용한 처방들은 北柴胡를 사용하여 그 功能과 主治가 《神農本草經》에 서술한 것과 일치하였으며, 唐대이후에 銀柴胡가 柴胡의 最上品으로 인식된 후부터 긴 세월동안 銀柴胡가 北柴胡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³⁷⁾. 그러나 여기서 기재된 銀柴胡는 銀州에서 생산되는 柴胡를 말하는 것이었고, 현대의 석죽과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것이 元, 明, 靑을 거치면서 柴胡의 品種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품종이 섞여서 쓰이게 되었으며, 明의 繆希雍이 쓴 《本草經疏》 처음 그 구분이 보이며, 이 시기를 즈음하여 銀柴胡와 柴胡가 임상에서 구분되기 시작했다³⁸⁾. 그러나 南柴胡는 江南지역의 醫家들이 사용한 것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柴胡劫肝陰이 아마도 이 南柴胡 품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⁹⁾. 南北柴胡는 공통적으로 疏瀉退熱, 解肝鬱의 效能이 있지만, 南柴胡는 升陽散邪와 疏肝解鬱에 있고, 北柴胡는 解熱瀉下, 推陳出新에 강하다.

결 론

柴胡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약재로서 金元 시기 전까지 《神農本草經》에 나오는 “主心腹腸胃中結氣, 飲食積聚, 寒熱邪氣, 推陳出新 久服輕身, 明目, 益精”등을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후 張潔古의 영향을 받은 李東垣등은 柴胡는 능히 引靑氣而行陽道할 수 있으며, 또한 引胃氣上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후대에서는 이것을 잘못 인식하여 陰虛이거나 孤陽勞熱인 자는 또다시 柴胡를 손상시키므로 虛하고 氣가 昇한 자에게는 이약을 금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이론은 이후의 柴胡의 性能에 영향을 끼쳤으며, 전에 있던 “靑虛熱, 滋陰血”에 대한 반대의 見解을 보이며 현대의 本草學에 기록된 “昇舉陽氣”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었다. 현대의 本초학교재에 나와 있는 昇舉陽氣의 예로 補中益氣湯을 들고 있

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李杲는 內外傷辨惑論에서 말하길 “中氣不足, 當補之證, 認作外感風寒, 有餘客邪之病, 重瀉其表, 使榮衛之氣外絕, 其死只在旬日之間”⁽¹⁰⁾ 이라 하여 그의 중심사상이 잘 드러나 있고, 脾胃內傷으로 인해 元氣不足하면 心火獨盛하게 되고 心不主令하면 相火代之하게 되어 火與元氣不能兩立, 一勝則一負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難經》의 唯當以甘溫之劑, 補其中, 升其陽, 甘寒以瀉其火則愈라 하여 補中瀉火의 방법을 쓸 것을 강조하였고, 《內經》의 “勞者溫之, 損者溫之, 蓋溫能除大熱, 大忌苦寒之藥瀉胃土耳.”의 원칙을 인용하여 “惟當以辛甘溫之劑, 補其中而昇其陽, 甘寒以瀉其火則愈”의 처방으로 補中益氣湯을 선택한 것이며, 昇清益氣를 통해서 飢와 勞役으로 인한 脾胃之陽受傷에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즉, 氣火失調하게 되면, 脾胃氣虛하여 脾胃不受令하게 되고, 心火至而不去하면, 下焦相火起而代之, 離位之火가 곧 陰火가 되는 것이다. 이 陰火를 끄는 방법으로 補中益氣湯에서 柴胡를 선택하였는데, 그것은 甘溫之劑로 脾胃를 補하며 昇陽氣를 겸하여 陰火를 降한 것이다.⁽¹¹⁾ 그 쓰임에 대한 기록은 “胃中清氣在下, 必加升麻, 柴胡以引之, 引黃芪, 甘草甘溫之氣味上昇, 能補胃氣之散解, 而實其表也, 又緩帶脈之縮急. 二味苦平, 味之薄者, 陰中之陽, 引清氣上昇也. 引清氣上昇”으로 나와 있으며 현대의 昇舉陽氣에 대한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李東垣은 補中益氣湯의 주석에서 “二分或三分引清氣, 引少陽之氣上昇”이라 하여 柴胡를 이용하여 少陽之氣를 昇하게 하고, 그와함께 疏土之妙를 겸하여 膽木의 過昇을 막은 것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柴胡의 小量은 引少陽之氣上昇을 하는 것이지 결코 陽氣를 위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柴胡의 大量사용은 오히려 疏降의 힘을 높여준다⁽¹²⁾. 이와 같이 柴胡를 단순히 昇舉陽氣로 보는 관점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형성되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柴胡의 품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진 과정에서 역대 醫家들이 이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과 서로 다른 지역에 생장하는 柴胡의 성질이 正品으로 醫書에 기록하고 있어 柴胡의 性味が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었고, 張潔古이후 수많은 醫家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것을 현대의 本草學은 發表退熱, 疏肝解鬱, 昇舉陽氣로 종합하고 있으나 본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發表退熱, 疏肝解鬱는 객관적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昇舉陽氣는 보다 정확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임상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5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徐富 · 催湖榮. 臨床韓方本草學. 도서출판 영길사. 2004:166
2. 尙志鈞. 中成藥. 1985: 第1期:31
3. 張中景. 傷寒雜病論. 廣西人民出版社. 1980:56
4. 黃爽輯. 神農本草經.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82:16
5.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6:40
6. 孫思邈. 千金方. 北京:華夏出版社. 1994:39
7. 孫思邈. 千金方. 北京:華夏出版社. 1994:65
8. 孫思邈. 千金方. 北京:華夏出版社. 1994:86
9. 王燾. 外臺秘要方. 北京:華夏出版社. 1997:55
10. 王燾. 外臺秘要方. 北京:華夏出版社. 1997:125
11. 王燾. 外臺秘要方. 北京:華夏出版社. 1997:130
12. 韓保昇. 口華子本草.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41
13. 太平聖惠方. 翰成社. 1979:1696
14. 中華醫書集成. 第八冊. 普濟本事方. 1998:29
15. 陳自明. 校注婦人良方.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415
16. 中華醫書集成. 第八冊. 太平惠民和劑局方. 1998:121
17. 內外傷辨.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2:29
18. 張元素. 醫學啓源. 주민출판사. 2003.
19. 李杲. 醫學發明. 도서출판 醫聖堂. 1987:9
20. 蘭茂. 滇南本草. 第2版. 雲南:雲南人民出版社. 1976:306
21. 陶節菴.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1990:123
22. 張景岳. 景岳全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7:340
23. 張景岳. 景岳全書. 北京:科學出版社. 1998:491
24. 李時珍. 本草綱目. 華夏出版社. 上冊. 1998:547-548
25. 傅山. 傅清主男女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73
26.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人民衛生出版社. 2006:942
27. 王清任. 醫林改錯.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5:19
28. 秦昌遇. 症因脈治. 中醫古籍出版社. 2000:67
29. 吳儀洛. 本草叢新. 杏林書院. 1972:12
30.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翰成社. 上권. 1972:166
31. 陳幼清. 江蘇中醫. 2. 1962.
32.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翰成社. 1982:740

33. 張景岳. 景岳全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1244
34. 馬繼興. 神農本草經集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61
35. 蘇頌. 本草圖經.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101
36.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77:787
37. 劉景源. 較點本. 和劑局方. 人民衛生出版社. 1985:214
38. 繆希雍. 本草經疏. 中醫古籍出版社. 2002:222
39. 王正公. 上海中醫藥雜誌. 1964. 09期:27
40. 葉川, 建. 金元四大家名著集成. 內外傷辨惑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5:398
41. 張星平. 上海中醫藥雜誌. 2003. 01期:46-48
42. 靳士華. 河北中醫. 1987. 02期:43